

세속사회의 인성교육론 : 쉐러의 미학교육을 통한 인성함양의 기독교적 관점

I. 서론

인성이란 인간성, 성격, 인격을 지칭하며 물성이나 신성과는 구분되는데 인성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지성과 도덕성이기 때문이다(유재봉, 2014: 88). 인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도덕성의 교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현재의 교육은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학교는 도덕성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성교육은 기능적 의미가 아닌 규범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규범적 인성은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이성과 도덕성에 따르는 것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많은 교육을 받아왔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성교육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인데 개인의 도덕성 함양이 어려울수록 사회 전체의 도덕성 함양은 더욱 어렵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성함양이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교육의 목적

세속사회에서 교육의 의미는 무엇일까? 학교 교육의 목적은 내재적 의미와 외재적 의미를 가진다. 내재적 의미란 교육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며 외재적 의미란 교육을 수단으로 하여 ‘사회적 역할을 선별’ 혹은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강다운, 2012: 1).

교육의 내재적 목적은 교육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 자체가 교육의 개념 안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교육이 교육 받는 사람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의 개념에 성장까지도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은 도덕적 탁월성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알게 해 주고 미학적 감수성을 미전 경험을 통해서 성숙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의 도구적 목적은 무엇일까? 도구적 목적이란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이 도구로서 기능할 때 교육을 통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그 교육자체를 수행하기 위해 세부 기능들만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의 도구적 목적은 외재적 의미를 가진다.

교육의 외재적 목적을 가지는 또 다른 예는 교육이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될 때이다. 교육의 실용적 목적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다른 학문에 유익한 기능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실용적 목적에 따르면 교육은 실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만을 가르치게 된다. 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함양하기 보다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들만을 선별하여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외재적 의미의 교육이라고 하겠다.

지식교육과 가치교육을 비교하기에 앞서 인간의 행동 결정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은 행동을 결정할 때 일련의 심리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은 ‘이념-가치-태도-행동 의도-행동’의 순차적인 단계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이념이란 어떤 집단이 사회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신념 체계를 뜻한다(김정호, 1997: 51-53). 따라서 이러한 신념 체계에 의해 사회 현상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식교육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이미 체계화된 지식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진 교육이기 쉽다. 반면 가치교육은 가치판단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간의 행동 결정 과정을 담고 있으므로 인간성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지식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의 체계를 습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교육이 지식 전달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반면 가치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은 인간성을 얼마나 함양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교육의 가치가 결정된다. 교육의 결과 인간이 총체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인 인간성 함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재적 의미로서의 교육의 목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인간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의 목표는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윤리적인 인간이란 사회적으로 합의된 행동을 하는 규범적인 인간을 말

한다. 즉 삶의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분하여 옳다고 판단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인간이 윤리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가치 안에는 도덕적 지식과 감정을 가지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성적 지식은 인식주체의 능동적인 구성활동을 위한 지식을 말한다. 따라서 지식을 개인이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개인의 경험적 세계를 조직해 나가는 적응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성적 지식은 도덕적 지식과 함께 윤리적 인간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정석환, 2010: 455-465).

Ⅲ. 예술의 범주와 미학교육

예술의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이 아름다움은 진리 그 자체로서 직접 체험해야 하며 이러한 체험은 예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술 속에서 아름다움을 체험하면서 인간은 자신의 감성과 이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능력을 터득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 교육은 사회적·정치적 문제 해결까지도 가능하다(조은정, 2002: 33-37).

예술을 통한 미적 체험이란 무엇일까? 예술 작품을 체험하면 우리는 감수성을 가지게 되고 작품에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현실을 반성하게 된다. 이러한 미적 체험은 우리의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홍현신, 1999: 41-43).

예술 작품을 통해 삶을 보다 만족스럽게 이끌어 가려면 심미적 경험이 주는 가치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실용적인 목적이나 유용성이 아닌 예술 그 자체가 제공하는 심미적 경험을 순수하게 느껴야 하는 것이다.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은 지적으로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이 인간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지는 못한다. 대신 심미적인 지식 즉 예술은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깃들여 마음을 발달시켜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것은 예술 작품이 우리의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적체험을 통한 교육은 우리를 총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준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자유의 간섭으로부터 감성을 보호 받는데 이를 감정이라고 한다. 또 감성의 폭력으로부터 인격을 보호받는데 이를 이성이라고 한다.

도덕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감성이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은 예술 혹은 미적교육을 통해 자발적으로 도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인간이 미적 자유의 상태에 이르는 것은 도덕적 자유와는 별개의 것이다. 쉴러의 미적자유는 감각세계에 뿌리를 두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인데 그렇다고 해서 감성의 세계를 완전히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자유와는 다르다. 도덕적 자유가 스스로 법칙을 세우는 반면 미적자유는 ‘현상 속에서의 자유’를 뜻한다(이병진, 1996: 154-155). 그러므로 미적 자유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해방과 완성은 도덕적 자유를 넘어서는 보다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김상섭, 2016: 199-201).

IV. 미적체험으로부터 도덕국가를 실현

‘미학편지’에서 쉴러는 미적국가를 개인의 본성을 통해 전체의 의지를 실현하여 현실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개인은 자발적으로 국가의 이념을 존중하고 국가는 총체적인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완벽하게 실현된다. 아름다움과 높은 문화는 인간을 자유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미적국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쉴러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결국 이러한 쉴러의 사상은 이상주의적인 면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현실에 꼭 필요한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그의 사상에 따르면 예술 교육은 예술 작품을 통해 인성의 조화와 인격 도야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쉴러는 미적교육을 통해 미적국가를 건설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 미적국가는 미적가상의 국가이며 순수한 교회나 공화국처럼 정선된 소규모 공동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 공동체는 집단의 제도나 개인의 욕망에서 해방이 가능하다. 미적국가는 개인의 미적인 욕구인 취미에 의해 개인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조화가 우선시된다. 이러한 개인의 내부적인 특성이 보편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쉴러가 말한 미적국가는 취미의 보편성에 기초한 사회의 통합과 개인의 총체성 회복의 실현이다(기정희, 2014: 77-79).

V. 인간의 충동 개념

설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충동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이것은 감각충동(der sinnliche Trieb)과 형식충동이다. 감각충동은 인간의 감각적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것이다. 이 감각적 본성은 인간을 자연 속에 묶어두고 신체적 생존을 갈구하며 자연의 시간에 속박되는 실재성을 띠는 소재로 만든다. 즉 감각충동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다. 또한 이것을 소재충동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소재충동에는 느낌, 감정 등이 있다. 형식충동은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서 나온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이성적 본성은 인간의 정신, 인격의 통일 등 형식성을 띠는 것이다.

설러는 인간을 외부의 감각적 사물 없이도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순수한 정신으로 보았다. 즉 인간은 인식능력과 도덕적 행위에 따라 자신을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지는 이러한 도덕적 행위 즉 도덕 법칙은 형식충동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현실적인 것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불편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감각충동과 형식충동의 가장 큰 차이는 감각충동이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 본 반면 형식충동은 인간을 신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다. 인간이 감각충동을 탈피하여 형식충동으로 옮겨가면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즉 형식 충동이 지배적일 때 인간의 순수함이 극대화하다 못해 야만인이 된다. 여기서 감각충동을 형식충동에 종속시키는 것은 두 영역을 영원히 분열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러는 유희충동을 제시한다. 두 영역은 상호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각 영역을 잘 보존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는 유희충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유희충동은 두 영역을 조화롭게 만들어 상호작용 시킨다. 감각충동은 자연법칙을 통해, 형식충동은 이성법칙을 통해 서로에게 강요를 하게 되는데 두 충동이 함께 작용하는 ‘유희충동’은 이를 결합하여 상호보완 관계에 있도록 만든다(정경윤, 2011: 39-49).

유희충동은 감성계와 초감성계, 상태와 인격, 경향성과 의무를 조화시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고 이중의 본성을 동시에 발전시킨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와

인격은 감성적 본성과 이성적 본성을 뜻한다. 상태는 현상적이고 변화하는 것이며 인격은 본질적이며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두 본성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인 미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된다. 즉 인간은 유희충동을 통해 아름다운 영혼을 이루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여기서 아름다운 영혼이란 이를 소유한 인간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며 인간 내면의 절대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소질을 극대화 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상태를 우리는 도야된 자(Gebildeter)라고 하는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신을 의미한다. 절대적인 능력과 현상의 절대적인 통일은 곧 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철러는 ‘아름다운 영혼’과 ‘숭고한 영혼’에 대해 우미와 존엄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름다운 영혼은 현상계에서 감성과 이성의 법칙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 한편 숭고한 영혼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서 모든 감성적인 저항을 극복하게 한다. 따라서 숭고의 감정에서 인간은 도덕적인 자립성을 갖는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영혼과 숭고한 영혼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아름다운 영혼은 현실에서 의무와 경향성이 일치하는 것이나 하나의 천성이므로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숭고한 영혼인 존엄이 필요하다. 의무와 경향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성을 극복해야 하며 이는 숭고의 체험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숭고를 통해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은 숭고한 영혼으로 변환된다(윤영돈, 2010: 266-269).

VI. 기독교적 인성교육과 대학에서의 교육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성교육이란 무엇일까? 우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뜻한다. 이 때문에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이며 인간이 인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인성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예수의 구속사역은 인간을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변모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기독교학적 관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성령’이다. 성령은 모든 교육의 주체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기독교학적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본성을 거역하고 온전히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삶을 영위할 때 완성된다.

오늘날 미적교육을 하는 이유는 예술 혹은 미학을 통한 인간형성이 목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세속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 세속사회에서는 인성교육이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일반 교양교과나 전공교과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인성과 관련된 주제를 부분적으로나마 가르치기도 한다(유재봉, 2014: 97).

이러한 세속사회에서 기독교학적 관점의 인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현재 대학에서 인성교육이 주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구체적인 실천 교육이라기보다는 신념체계에 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행하기가 어렵다.

인성교육에 기독교학적 관점을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삶을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게 인도하는 것이다. 기독교학적 관점의 인성교육의 덕목을 세세하게 가르치는 것 보다 성령대로 살면서 그 삶 속에 덕목들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기독교학적 관점에서 신의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신과 자신의 관계에 대한 사고를 깊게 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속사회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기독교학적 관점의 인성교육은 자발성이 결여된 상태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성령의 인도가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학적 인성이 길러지지 않는다(유재봉, 2014: 93-96).

결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성함양이 기독교적 인성교육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지 알아보았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교육 특히 미적교육이며 우리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총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인간의 본성은 이중적인데 감각과 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총체성이 길러진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쉴러는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인 인격과 상태, 이성과 감각을 통일시키기 위해 감성적 인간을 ‘미’적 체험을 통해 이성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야만 자유로운 상태인 ‘미적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적 자유’이다.

우리는 쉴러를 통해 인간이 총체성을 되찾으려면 예술을 도구 사용하여야 하고 이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현된다는 것을 알았다. 쉴러는 미적 교육을 통해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간성을 갖출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적 교육이 곧 참된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속 사회에서 인성교육은 교과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된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적 인성교육은 성령의 인도 안에서 자신과 신과의 관계를 깊이 성찰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야만 완성된다. 기독교적 인성교육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며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덕목들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정경윤 (2011). 쉴러의 『미적 교육론』에 나타난 미적경험과 예술교육.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현신 (1999). 인본주의적인 예술 교육 사상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정 (2002). 쉴러의 『미적 교육론』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다운 (2012). 교육의 내재적 목적의 실천적 의미 고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재봉 (2014). “세속 대학에서의 인성교육.” 『신앙과 학문』 19(3). 85-106.
- 기정희 (2014). "미적국가의 이념과 그 현대적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3(1). 67-96.
- 김상섭 (2016). "쉴러의 「인간의 미적 교육론」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미적 인간’의 교육론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 『도덕교육연구』 28(3). 197-224.
- 이병진 (1996). "쉴러의 미적 교육론에서의 미적 자유 개념." 『문예미학』 2.143-168.
- 김정호 (1997). "환경교육에서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가치의 관계." 『환경교육』 10(2). 51-62.
- 정석환 (2010).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지식론과 교육." 『교육철학』 41.441-471.
- 윤영돈 (2010). “쉴러의 미적 교육론에서 의무와 경향성의 조화.” 『윤리연구』 76.255-282.